

“행통하는 인생”

수1:1-9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다 성공적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도 못 찾고 헤매거나 죄만 짓다가 인생을 낭비해 버립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의 길을 찾아서 끝까지 제대로 달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결코 가치 있는 삶을 살수도 자신의 가치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뜻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운수대통이요 행통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불평 많은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해야 하는 부담과 미지에 세계에 대한 불안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행통하는 인생의 원리를 전하신 말씀입니다.

1. 말씀에 대한 순종

“(수 1:2)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요단강은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관문입니다. 가나안을 들어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때는 모택 거두는 시기로 북쪽 산의 눈이 녹고 봄비가 내려서 요단강에 가장 물이 많이 넘치던 시기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합니다. 마치 홍해가 넘실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격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장세웠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기자 위로부터 오는 물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행통의 원리입니다.

“(수 1:7)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행통하리니” 말씀에 순종하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수 1:3)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평생토록 모든 행동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세상을 살아갈때 행통하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지켜행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 1:8)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행통하리라”

오늘날 이 시대는 순종하는 사람 즉 행동하는 신앙인을 찾고 있습니다. 관념의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관념이나 개념이 아닌 행동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시고 우리의 신앙고백의 진실성을 확인하십니다. 따라서 백마디 신앙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고백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기도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영향을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적당한 중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행통이요 불순종은 저주입니다.

2. 작은 일에 충성

행통은 항상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시종 즉 몸종의 위치에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몸종으로서 작은 일부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충실히 잘 해내자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 그 일을 충실히 잘 해내자 이번에는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우리는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지시할 때는, 필요한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작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작은 일이라고 절대 소홀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을 통해 가능성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마 25:21)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세상에 주면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하찮은 일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일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는 순간부터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은 작은 일이 없습니다. 인간의 척도로 작은 일로 보이는 일도 사명으로 인식하고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놀라운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3. 철저한 기도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철저한 기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후 첫번째 전쟁이 르비딴에서 아멜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여호수아를 보내놓고 모세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이 싸움이 칼과 창이 아니라 영적 전쟁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보낸 후에 자신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출 17:10-11)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전쟁의 승리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심을 배웠습니다. 그는 모든 배후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소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불타는 소원, 강렬한 소원이 필요합니다. 집중의 원리란 말이 있습니다. 집중하면 놀라운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 에너지가 우주를 움직입니다. 사람을 움직입니다. 환경을 새롭게 창조합니다. 인생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노예인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처럼,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그 나라 총리가 된 것처럼 우리 인생은 역전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끈질긴 기도와 변함없는 기도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시대를 초월해서 형통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우리 자신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환경이 변화됩니다. 기도는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원리요 법칙입니다.

4. 준비된 삶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호수아도 오랜기간동안 고난과 역경을 통해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40년을 모세 밑에서 준비시켰습니다. **“(수 1:1-2) 여호와와 중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형통을 가로막는 것은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으로 인해 형통의 길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대한 작품은 하루 밤에 만들 수 없습니다. 최고 권위를 갖고 있는 영어사전 웹스터가 만들어지기 위해 36년이란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명한 작품인 <최후의 만찬>은 10년동안 그린 그림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도 8년간이나 심혈을 기울여 그린 그림입니다. 옛말에 ‘가장 먼 길은 지름길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나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빼버리고 훌륭한 결과를 얻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거목은 하루 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어떤 버섯은 여섯시간 만에 자랍니다. 호박은 6개월만에 자랍니다. 그러나 참나무는 최소 6년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80년 여호수아에게는 40년 동안 준비시켰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말하기를 ‘내가 공부하고 준비하면 기회는 언젠가는 찾아올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실패 중에서도 준비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록 오랜기간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5.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수 24:15)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성경적인 행통의 원리와 세상의 행통의 원리가 구분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성경적인 행통의 원리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인생에서 형통한 사람들은 앞을 내다보는 안목과 함께 현실을 직시하는 통찰력을 소유했습니다. 앞을 내다보는 것을 선견이라고 합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눈을 정견이라고 합니다. 형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선견과 정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면 남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문제 해결책을 소유하게 됩니다.

모세의 몸종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가 되어 이스라엘의 지상과제인 가나안 땅을 평정한 여호수아는 형통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는 말씀에 순종했으며, 작은 일에 충성했으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하게 준비된 삶을 살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이런 인생의 행통의 원리와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눔의 시간

1. 이번 주 설교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으며 내가 적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2.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낸 경험들을 나누어 주십시오.
3.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이겨내며 충성하셨던 경우를 나누어 주시고, 그 충성됨으로 얻어진 귀한 은혜와 열매들을 나누어 주십시오.
4. 영적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경험들을 나누어 주십시오.
5. 준비하는 기간은, 실제로 인내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이 얻은 은혜와 기도응답 중에서 가장 오랜 준비기간이 소요된 것은 무엇이며, 얼마나 걸렸고, 어떻게 인내하며 그 시간들을 보내셨는지 나누어 주십시오.
6. 2015년 한 해 동안, 인내하며 준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으면 나누어 주시고 함께 기도합니다.